



전주교대, 2022년도 강의 우수 교원 5명 표창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준)는 20일 대학 본부 총장실에서 2022학년도 1학기 강의 우수 교원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강의 우수 교원은 교육정책 추진, 교수·학습 지도·방법 개선,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 발전에 공적을 쌓은 교원 중 해당 학기 강의평가 결과 상위 10% 이내에 속한 교원 5명을 선정했다.

전주교대는 매년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강의 우수 교원 선정과 표창을 하고 있다.

이번 2022학년도 1학기 강의 우수 교원으로는 박진희·부재울·김성환·이충한·최은아 교수 등 5명이다.

박병준 총장은 "대학은 무엇보다 교원들의 우수한 연구 실적과 교육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흥부골 남원추어탕, 인월면에 마스크 13만장 기부

남원 인월면(동장 왕길성)은 지난 19일 인월면의 소씨네 흥부골 남원추어탕 소씨봉 대표가 일회용 마스크 130,000장(5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소 대표는 평소에도 명절과 행사 때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을 28년째 꾸준히 하고 있으며, 지난 설에도 백미 10kg 31포(환가액 100만원)를 관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해달라며 기탁한 바 있다.

소씨봉 대표는 "요즘 코로나9 재유행으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어려움을 다시 되풀이 하지는 않을까 주민들이 염려되어 기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찾아가는 양성평등 포스터 전시전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찾아가는 양성평등 포스터 전시전을 청사 1층 로비에서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사회 구성원들의 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해 전리북도 주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협력으로 군산 정읍, 남원에 이은 찾아가는 전시이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양성평등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 23점을 접근이 용이한 배너 형태의 포스터로 전시함으로써 양성평등 실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지리산 곶랭지 포도 본격 출하

남원 동부권 곶랭지역(운봉, 인월, 아영, 신계)에서 생산되는 지리산 곶랭지 포도가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다.

남원 동부권 지역은 여름철에 비교적 서늘하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이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는 맛과 향이 뛰어나고 저장 기간이 길어 소비처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어 고품질 포도 주산지지로 성장해 왔다.

현재 남원 포도는 700여 농가 370ha 규모로 이중 지리산 곶랭지 포도는 500여 농가 230ha 규모로 재배되고 있으며, 품종은 주로 캠벨델리와 사인머스켓을 재배하고 있고, 금년에는 3kg 한 상자 기준 35,000원~40,000원 선으로 출하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산회-대자인병원 상호 협력’

공감치유센터서 협약 체결

전주시 완산구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장 모임인 완산회(회장 이계순)와 대자인병원(병원장 이병관)이 20일 11시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에서 완산회 회원들의 건강서비스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완산회 이계순 회장 및 김병수 완산구청장 등 완산회 회원과 대자인병원 이병관 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을 물론, 완산회 임원진 및 회원(가족포함)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의 예방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 의 건강과 복지증진 향상에 협력하게 된다.

이병관 대자인병원장은 "완산회와 대자인병원의 협약을 통해 완산회 회원들의 맞춤형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회원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완산회와 대자인병원이

상호협력력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계순 완산회장은 "먼저 완산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상호 발전 모색을 제안한 대자인병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의 공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하나의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건협 전북지부, 올 두 번째 생명나눔 헌혈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 김민수 이하 건협 전북지부)는 20일 지부 주차장에서 생명나눔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헌혈은 지난 1월에 이은 올해 두 번째로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임직원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혈액 수급이 점차 줄고 있으며,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이 겹쳐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 아래로 하락할 확률이 높아 헌혈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건협 전북지부는 헌혈 전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참여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시간대별로 인원을 분산해 단체헌혈을 실시했다.

건협 전북지부 관계자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모든 분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 행사를 추진하여 공익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임실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협약체결

임실군이 임실군노인복지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와 위·수탁 협약식을 20일 가졌다.

협약식에는 심 민 군수와 유희영 사회복지법인 삼동이사 및 관계자가 참석해 위탁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약했으며, 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5년간이다.

군은 수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7일까지 2회에 걸쳐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7월 13일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삼동회가 적격자로 선정됐다.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임실군노인복지관 2개소를 수탁 운영해 온 법인으로 89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며,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노인복지관은 수탁법인이 지난 10년 이 넘게 운영해온 만큼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누구보다 잘 부응하였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불법 무질서행위 현장 특별단속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현교)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탐방객 급증으로 인해 탐방수요 및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상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순찰팀을 가동하여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를 여름상수기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취사·야영행위와 계곡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단속 시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 사안에 따라 자연공원에 의거 10만원 ~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회찬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덕유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시장과 함께하는 친절교육 진행

남원시는 20일, 시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실 근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친절교육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민원인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경식 시장을 특별강사로 초빙해 '역지사지는 소통의 기본'이란 주제로 자신의 생각이 소중한 만큼, 민원인의 생각 또한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모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교육했다.

남원시는 그동안 시민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약자 배려창구와 접점?응답내 시스템 운영, 양방향 마이크 설치, 매월 2회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 직원이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 만들기에 앞장서왔다.

한편 최 시장은 "남원시의 친절행정이 곧 남원시장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피력하며, "민원 응대가 그 첫걸음인 만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시민이 감동하는 대민서비스를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위센터, 코로나19 회복지원사업 선정 학생들 지원금 전달

전주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코로나19 회복지원사업인 리커버리(RECOVERY) 프로젝트 연계 사업을 통해 지원금 3,800여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주위(Wee)센터 사회복지사(김미정, 나은희)들은 가정 상담을 진행하던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상황을 인지하고 도움 방법을 모색해 왔다.

그러던 중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지원 가능한 리커버리 프로젝트'를 통해 총 13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리커버리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 및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코로나 회복지원 사업으로, 생계비, 주거환경개선비, 의료비, 학습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 구미희 본부장은 "코로나19로 피해받고 있는 아동이 일상으로 돌아가 꿈을 펼칠 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영민 교육장은 "이번에 선정된 아동은 기존 저소득층을 포함해 공적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계에 있던 사각지대 아동이며, '학습권 보호와 가구의 재정 해소 및 정신건강을 위해 지원해 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에 깊이 감사드리고, 선정된 가정에 잘 쓰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서신동 해바라기봉사단, 어르신 찰밥나눔 봉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동장 노상복) 해바라기봉사단(회장 이영희)은 20일 동 주민센터와 함께 관내 30여 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찰밥'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해바라기봉사단 회원 13명은 과일과 밀반찬을 정성껏 준비해 무더위에 지친 관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이영희 회장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올해 여름을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영양 가득한 찰밥을 드시면서 무더위로 날리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하여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동로타리클럽, 복지시설에 사랑의 백미 후원

국제로타리3670지구 전주동로타리클럽(회장 박상용)은 20일 '천년전주 결연봉사'로 교류를 이어 온 전주시 조촌동 주민센터(동장 이강련)를 찾아 관내 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 10kg 20포를 전달했다.

박상용 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으로 모아진 따뜻한 마음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동로타리클럽은 매년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